

9/17/21

설교 제목: 엘림이 바로 저기인데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15 장 22-27 절

(출 15: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출 15: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출 15: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 15: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출 15: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본문은 출애굽기 15 장에 기록된 두 극적인 장면 중 두 번째 장면입니다.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고 뒤쫓아 오던 애굽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몰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후 경외와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1-21 절).

그리고 바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삼일만에 마라에 도착해 물을 얻을 수 있었으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22-27 절).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동일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흘 전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그 감격은 어느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 백성을 향한 사랑만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본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넌 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남쪽 수르 광야로 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당신을 섬기도록 미리 예정하여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지역 특성 상 이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준비해 온 물은 고갈되었습니다.

약 200 만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장정만 60 만명)들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많은 가축들이 물없이 광야 길을 건디기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일만에 마라에 도착하여 물을 얻기는 했으나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 붓습니다.

(출 15: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출 15: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출 15: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후 최초로 장막을 친 곳입니다.

마라는 '괴롭다' '쓰다'라는 뜻으로 이곳의 물맛이 쓰고 짜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생긴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라의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마실 물이 없자 불평과 원망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후에도 역경에 부딪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불신실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솔직하지 못한 비굴한 모습도 봅니다.

솔직히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잘 살고 있는???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이토록 고생을 시키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비겁하고 비굴하게도 직접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직접 원망을 퍼붓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워 하나님 대신 모세를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흘 전에 홍해를 갈라 자신들로 하여금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쫓던 애굽 바로의 군대를 수몰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고통과 고난이 없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되게 해 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시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 주시고 남편도 승진하게 해 주시고 .....이런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그럼디까?

세상은 수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아니하고 만사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복 신앙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만사형통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세상의 복이 아니고 썩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복, 진짜 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환난을 당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한 환난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란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요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 50: 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탄 마귀는 환란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믿더니 꿀 좋다. 예수 믿기 전이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더냐?"며 속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같은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이미 떠났던 애굽을 뒤돌아보며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자자손손 노예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은 고생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자손손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탄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환란이 닥치더라도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이미 떠났던 애굽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옛 습관 옛 성품 옛 지식 등등 옛 것들을 버리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탄 마귀로부터의 해방의 자유를 만끽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십시요.

극심한 환란 가운데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 13:15)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욥은 믿음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장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 15:25) 모세가 여호와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출 15: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백성들을 꾸짖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백성들에 동조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지니 쓴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법도와 율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함으로써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하기에 앞서 말씀하신 이 요구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르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과 죄 등등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까지도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환란 가운데 있으십니까?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 이미 마련해 놓으신 나무를 지시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달아져 당장 마실 수 있었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나무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충분한 복이 있었습니다.

물샘 12 개와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었습니다.

12 와 70 은 완전수로 완전한 휴식처와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출 15: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와 엘림은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과 10km 만 더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물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당장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합니다.

만일 마라의 물이 처음부터 쓰지 않고 달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같은 연단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니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지라도 낙망하거나 절망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은혜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욥의 간증입니다.

(욥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롬 5: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롬 5: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